

기업 DX 가속화에... 클라우드 업계, 두자릿수 공개 채용

(디지털전환)

3월까지 상반기 신입·경력 채용
클라우드 관련 경력직 채용 '집중'
IaC 구축운영·블록체인 등 선발

길어지는 취업 빙하기에도 클라우드 관련 업계는 기업의 디지털전환(DX)의 가속화로 채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클라우드 및 DX 관련 기업들이 3월까지 상반기 신입 및 경력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대부분 기업이 두자릿수 고용을 예고했고, 일부 기업은 클라우드 기술 관련 경력직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 DX의 핵심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2023년 클라우드 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5조 8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성장했다. 2020년 4조 원대를 돌파한 후 2년만에 46% 성장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공급 기업은 2020개로 전년 대비 14.5% 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공급기업 수는 SaaS가 1,324개(65.5%)로 가장 많고, IaaS 419개(20.7%), PaaS 152개(7.5%), CMS 65개(3.2%) 순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 센터 '각'의 전경. 서버로 빠르게 들어찬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이다. /네이버

에도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AI,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문화·기술적 트렌드에 의해 클라우드 공급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계속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클라우드 업계는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빙하기로 칭해지는 IT 업계지만 클라우드 업계는 예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체험형 인턴십과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인턴십은 4월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글로벌 환경에서의 DX, AI 기술/서비스 관련 시장 조사, 스마트 빌딩, 시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AI 서비스 관련 서비스 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험형 인턴으로써 3개월 근무한다. 인프라 엔지니어링(~3월6일)과 AI 모델러(~3월11일)는 경력채용으로 기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선발한다. 인프라 엔지니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구축, Terraform, CloudFormation 등 IaC 구축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올해 상장 예정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오는 3월 18일까지 두자릿수 규모 경력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IaaS, PaaS, CMP 등) 제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사업, 클라우드 관제 및 운영관리 등 클라우드 사업 전 과정에 참여 중이다. 채용 분야는 ▲S/W 개발 ▲블록체인 ▲클라우드 컨설팅 ▲클라우드 기술지원 ▲기술영업 등 8개 부문 24개 직무에서 총 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코리아엑스퍼트(THE KE)는 지난 14일부터 신입·경력 상시채용을 시작했다. ▲IT 솔루션 영업 담당자 ▲DT 솔루션 엔지니어 ▲자바(Java) 풀스택 개발자 및 유지보수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 등이다. 코리아엑스퍼트는 국내 최호를 엔진 전문기업으로 시작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안/인증, 클라우드, DX 등 신사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B2B 핀테크 & SaaS 전문 기업 웹케시그룹도 3월 10일까지 2024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웹케시, 쿠론, 비즈플레이, 비플페이, 글로벌 5개 부문의 9개 직무에서 두자릿수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4월 중 입사하게 되며, 3개월의 인턴 기간 이후 평가 결과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채용 직무에 따라 웹케시, 쿠론, 비즈플레이, 비플페이, 웹케시글로벌로 소속이 확정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97%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 받는 데에는 자원 확장과 축소의 유연성과 효과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 AI 적용,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의 추가 접목도 용이해 최근 기존 서버 인프라 등을 보유한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을 고수하던 기업들도 빠르게 전환에 합류 중이다. 여러곳으로 분산 저장되는 클라우드 데이터 특성상 재해에도 언제 어디서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장점만 쏙쏙... 럭셔리·스포티·성능 다 갖춘 '완성체'

자동차 시승기

벤츠 CLE

넓은공간·스포티한 주행 모두 충족
서스펜션 등 필요에 따라 세팅 바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탑재
추후 순정 내비게이션에 티맵 적용

메르세데스-벤츠가 2도어 쿠페형 세단에 2가지 과제, 럭셔리와 스포티를 모두 구현했다. CLS와 E클래스 쿠페, C클래스 쿠페까지 모두 합친 CLE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3월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최근 CLE를 출시하고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었다. 서울 청담동에서 경기도 외곽을 거쳐 오는 왕복 100km 가량 거리를 달렸다.

킬리아 텔렌 벤츠 코리아 부사장은 시승 행사에 앞서 넓은 공간과 스포티한 주행 경험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CLE는 외관으로 보면 E클래스 쿠페와 거의 유사하다. 4.8m 가량 길이에 1.86m 전폭은 거의 같다. 실제 내부 공간과 직결되는 축거 숫자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눈에 띄일만큼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덕분에 E클래스 쿠페 장점도 그대로다. 운전석에 앉으면 E클래스보다도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보조석까지 손이 닿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엠비언트 라이트가 더해지면서 CLS 수준 고



디 올 뉴 CLE.

/메르세데스-벤츠

급감도 느껴진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심장이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2L와 3L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각각 직렬 4기통과 6기통으로 구성된다. E클래스 쿠페와 C클래스 쿠페 주력 모델을 모은 셈.

당연하게도 크게 업그레이드 했다. 3L 엔진인 450 트림을 기준으로 M 256M, E클래스 쿠페보다 최고 출력이 20마력 높는데 연비도 2km/L 가까이 개선했다. 심지어는 저공해 차량 2종 인증을 받아 주차료 감면 등 혜택까지 더했다.

2L 가솔린 엔진 역시 종전 C클래스 쿠페보다 토크를 더 끌어올렸다.

주행 감성도 E클래스와 C클래스 쿠페를 합친 듯 했다. 목직한 E클래스 쿠

페 느낌이 남아있지만, 조향이나 가속력은 조금 더 가볍고 경쾌했다.

특히나 고속에서 안정성이 매력있었다. 엔지니어링 패키지에 있는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과 '리어 액슬 스티어링'으로 필요에 따라 차체 세팅을 바꿔준다. 목직한 차체를 바닥에 잘 붙여주는 느낌이었다.

럭셔리 세단급 답게 편의 기능도 가득해서 정체 구간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기본으로 탑재, 설정만 해주면 알아서 잘 움직여준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순정 내비게이션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었다. 추후 순정 내비게이션도 티맵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란단.

3세대 MBUX는 인포테인먼트 시스



CLE 실내는 매우 넓고 고급스럽다.

템을 더 진화시켰다. 음성 인식 기능은 조금 더 정확해졌고, '무틴' 기능을 새로 지원해 개인화도 강화했다.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게임까지 구동 가능, 운전자 행동을 인식하는 '인테리어 어시스트'도 익숙해지면 유용하겠다 싶었다.

여러 모델을 합한 탓에 CLE만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이다. '스포츠킴' 처럼 폭발적인 성능도 아니고, 아무리 넓어도 2열에는 가방이 나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되기도 한다. 벤츠는 상반기 오픈카인 CLE 카브리올레도 출시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유독 인기가 없지만, CLE라면 새로운 기회를 노려볼만하겠다 싶다. AMG까지 더해지면 세단형 쿠페 풀 라인업을 재정의할 수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

MWC 2024

KT, 차세대 네트워크·AI
혁신 통해 미래생활 선포

KT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통신 사업 역량에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IT)을 더한 'AICT'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KT는 지난달 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폐막한 'MWC 2024' 전시회에서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 K T'를 주제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및 AI 혁신기술을 통해 달라질 미래 생활을 선보였다.

3일 KT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마츠그란리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사무총장을 비롯해 아마존웹서비스(AWS), 퀄컴, 에릭슨,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등 모바일 산업 관련 주요 인사가 방문했다.

'NEXT 5G' 존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을 위한 항공통신망 구축 기술과 양자암호, 전력 절감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였고, 'AILIFE' 존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이 적용된 AI반도체, 소버린 AI 사례 등 초거대 AI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글로벌 소통 행보도 성과를 얻었다. 국내 유일한 GSMA 보드 멤버인 김영섭 대표는 한국 통신사 대표로 'CEO 보드미팅'에 참석해 글로벌 통신사 수장들과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논의하고, 오승필 기술혁신부부장(CTO)은 'CTO GTI 서밋 키노트'의 연사로 참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